

SON 내밀자 이강인 ‘꿀패스’ 보답...태국에 3-0 대승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이재성·손흥민·박진섭 1골씩 이강인 날카로운 패스 살아나 손 “손준호 돌아와 너무 기뻐”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토트넘)이 흡족한 미소를 얼굴에 머금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비롯한 대표팀 동료들을 칭찬했다.

한국은 26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칼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에서 태국에 3-0 완승을 거뒀다.

대표팀은 올 초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절친 끝에 4강에서 탈락한 데다 각종 추문과 사건까지 터지면서 흔들리던 터였다.

지난 21일 태국과 홈 경기에서 1-1로 비기며 웃지 못한 대표팀은 이날 패스로 그간 짝이던 부담감을 털어냈다.

‘주장’ 손흥민의 표정에도 웃음이 가득했다. 아시안컵 기간 차세대 간판 이강인과 충돌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에 충격을 줬던 손흥민이지만, 이 ‘하극상 사건’도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됐다.

손흥민은 이날 후반 9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2-0을 만드는 골을 만들었다. 이후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이강인을 열싸안고 기뻐했다.

경기 후 공동취재구역에서 취재진과 만난 손흥민은 관련 질문에 “(이강인이) 무겁더라”고 농담부터 했다.

손흥민은 “(포용할 때)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강인 선수가 더 멋진 선수가 될 거라 분명히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이강인을 두고 “귀여운 막내만의 매력이었다”고

평가한 손흥민은 “이제 모든 사람이 강인 선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본다. 플레이 하나하나, 어떤 양말을 신나, 어떤 축구화를 신나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천만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했으면 한다. 약속했듯이 내가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줄 것”이라며 “강인 선수도 그걸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이날 선제골의 주인공 이재성(마인츠)도 칭찬했다.

그는 “난 (이)재성이 과소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옆에서 뛰는 선수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는 선수”라며 “경기 끝나고 발을 보면 고마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막내처럼 열심히 헌신해준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가 10개월여만에 풀려난 손준호의 귀환도 반겼다.

중국 산둥 타이산 소속으로 국가대표로도 활약하던 미드필더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흥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연행됐다. 이후 형사 구류돼 라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오다 최근에야 석방됐고, 전날 귀국했다.

손흥민은 “손준호 선수가 한국에 돌아온 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한국 축구 팬들도 국민으로서 많이 기다리던 뉴스”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국가대표팀과 연결해 막 자유의 몸이 된 손준호에게 부담을 지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도 전했다.

손흥민은 “준호 선수에게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대표팀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이른 것 같다. 나도 정말 기다려왔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언젠가는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에서 손흥민이 이강인과 함께 두 번째 골을 터뜨린 것을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선홍 없는 황선홍호’ 서아시아 U-23 챔피언십 우승

승부차기 사우디에 4-3 승

황선홍 감독이 A대표팀 임시 지휘봉을 잡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024 서아시아축구연맹(WAFF) U-23 챔피언십에서 승부차기 끝에 우승했다.

한국 U-23 대표팀은 27일 사우디아라비아 알 무바라즈의 알 파테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전·후반 90분 동안 호주와 2-2로 팽팽히 맞선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골키퍼 김정훈(전북)의 연이은 선방으로 4-3으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내달 15일부터 카타르에서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겸해 열리는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의 전초전 성격 대회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을 필두로 호주,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 태국, 아랍에미리트까지 8개국이 출전했다.

황선홍 U-23 대표팀 감독이 A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연전을 지휘하느라 자리를 비워 ‘황선홍 없는 황선홍팀’으로 대회에 참가했지만, 선수들이 똘똘 뭉쳐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를 연파하며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다.

한국은 잉글랜드 2부 리그 스토크 시티에서 뛰는 배준호가 소속팀의 요청으로 조기 복귀하면서 결승전은 함께하지 못했다.

한국은 전반 11분 호주의 알루 쿠울에게 선제 실점을 끌려갔다.

제이컵 이탈리아노가 오른쪽 측면에서 넣은 컷백 패스를 쿠울이 골대 정면 페널티 지역에서 가볍게 차 넣었다.



WAFF U-23 챔피언십에서 호주를 꺾고 우승한 한국 선수들. /WAFF SNS

한국은 전반 26분 균형을 맞췄다.

조현택(김천)이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의 이영준(김천)이 머리에 맞춰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을 1-1로 마친 한국은 후반 17분 상대의 패스 실수를 유도해 역전 골을 뽑아냈다.

상대 진영에서 이강희(경남)가 공을 뺏아 냈고, 강성진(서울)이 이어받아 페널티 라인 부근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문을 갈았다.

한국은 10분 뒤 호주의 쿠울에게 다시 골을 내줘 동점을 허용했고, 양 팀은 후반전이 끝날 때까지 추가 득점에 실패했다.

호주의 선축으로 시작된 승부차기에서 한국은 골키퍼 김정훈의 눈부신 선방이 빛났다.

양 팀의 1~3번 키커가 나란히 골망을 흔들 상 황에서, 김정훈이 호주의 네 번째 키커 제이코 홀먼의 슛 방향을 읽고 정확히 막아냈다.

한국의 네 번째 키커 서명관(부천)은 깔끔하게 성공했고, 이후 김정훈이 호주의 다섯 번째 키커 가람 쿠울의 슛까지 막아내며 한국의 우승을 확정 지었다.

김승원, 8년만에 여자 배영 50m 한국 신기록

국대 선발전서 28초00 기록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온 김승원(14·구성중·사진)은 수많은 카메라와 취재진에 잠시 놀란 듯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전교 회장 출신답게 차분하게 긴장하지 않고 “한국 신기록을 세운 건 생각도 못 했고, 전광판을 보는 순간 (입을 손으로 막으며) ‘합!’ 이런 마음이었다”며 8년 만에 탄생한 여자 배영 50m 한국 신기록의 순간을 전했다.

김승원은 지난 26일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배영 50m 결승에서 28초00에 가장 먼저 터치 패드를 찍었다.

2016년 4월 달성된 유현지(경남수영연맹)의 종전 한국 기록 28초17을 0.17초 앞당긴 새로운 한국 기록이다.

4번 레인에서 불살을 가른 김승원이 바로 옆 5번 레인에서 유현지와 함께 경쟁한 결과라 더욱 뜻 깊은 장면이었다.

또한 여자 배영 간판으로 거듭나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이은지(방산고·28초63)까지 밀어내고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했다.

김승원이 한국 기록을 달성한 배영 50m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니다.

이번 대회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닌 경기의 우승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돼 전진선수촌에 입촌할 자격을 얻는다.

사실 김승원도 이번 대회에서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얻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25일 열린 배영 100m 결승에서 부정 출발하는 바람에 아쉽게 기회를 놓쳤다.



김승원은 “실적당했을 때는 많이 긴장했던 것 같다. 마인드를 다시 잡는 게 힘들기는 했고, 남은 배영 50m를 열심히 하자고 마음먹었다. 울지는 않았다”며 “주변에서 올림픽이 좋은 기회라고 많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원의 목표는 더 크다. 배영 100m에서 한국 기록도 달성하고 싶고, 더 성장해 세계 기록까지 수립하고 싶다.

지난달 열렸던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도 다녀온 김승원은 “가장 가지고 싶은 목표는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세계 기록을 깨는, 그런 큰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파묘
2관	뎃글부대
3관	1980
4관	고질라 X 콩: 뉴 엠파이어
5관	뎃글부대, 1980
6관	뎃글부대
9관	파묘, [위드키즈]래빗스쿨 2: 부활절 대소동
7관 씨네마plex	둔: 파트2, 가여운 것들, 드림상3
극장판 스파이 패밀리 코드: 화이트,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김대중-함께 합시다, 집행	
8관 씨네마plex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3월

매주 월-일 17:00

광주공연마루

광주상설공연

2024년 광주상설공연(3월)

일시 : 2024-03-02(토) ~ 2024-03-31(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안승민 개인전 <점-존재>

일시 : 2024-03-29(금) ~ 2024-04-28(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